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 분석을 통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간접 화행 연구

황 선 영

Abstract

Hwang Sunyoung. 2016.03.31. A Study on Indirect Speech Act of Korean learners through Analysis of Morphosyntactic Mitigators. *Bilingual Research* 62. 185-208. This study compares the strategies and morphosyntactic mitigators during the request speech act of Chinese-speaking Korean learners with those of native speakers. The research questions is “What different strategies and morphosyntactic mitigators do native speakers and Chinese-speaking Korean learners use in request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Comparing the strategies in given situations, the results seemed to show that both groups used the “Preparatory condition, Possibility, Permission” strategies to perform the indirect speech act. However, the groups differed in the types and tokens of morphosyntactic mitigators, implying the possibility of pragmatic failure. Moreover, the choice of morphology endings or expressions also differed, confirming the need for learning and teaching in this area. Therefore, further studies on speech act should focus not only on strategies but also on linguistic expressions, and the resul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fiel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list the teaching items to improve the teaching possibility of pragmatic items. (Ewha Womans University)

[Key words]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morphosyntactic mitigator), 요청(request), 언어 표현(linguistic expression),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Chinese-speaking Korean learners), 중간언어 화용론(Interlanguage Pragmatics)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Grice(1975)가 대화 협력을 위한 원리 중 첫 번째 ‘양의 격률’로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어 대화에서는 언어의 경제성이 중시된다. 그러나 화자가 양의 격률을 위배하면서 길게 말했다면 이는 화자의 특정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가령, 요청이나 거절과 같이 상대방의 체면(face)을 위협할 수 있는 화행을 발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화자는 대화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간접적인 방식일까? 지금까지의 한국어 요청 화행 연구에서는 CCSARP(A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의 ‘간접성의 정도에 따른 전략’¹⁾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언어를 분석하거나(김지혜, 2013; 수파편 분룡, 2007; 이선명, 2009) 전략에 따라 교재에 나타난 요청 화행을 분석하는 연구(김수정, 2011; 김혜련·전은주, 2013)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Blum-Kulka & Olshtain(1984)에서 논의된 요청 화행 발화 시 사용하는 범언어적 전략에 대한 결과를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수정,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1) CCSARP는 1980년대 미국에서 Blum-kulka, House, Kasper 등의 연구자들이 언어 행위에 교차 문화적으로 어떠한 변인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모여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호주 영어,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캐나다 불어, 덴마크어, 독일어, 히브리어, 러시아어를 대상으로 8개국, 국가별 400명을 대상으로 요청과 사과 화행을 연구하였다(Bulum-Kullka & Olshtain, 1984:197). CCSARP에서는 간접성 정도를 9가지 하위 전략-서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 명시적 수행 표현(explit performative), 약화된 수행 표현(hedged performative), 의미에 의한 도출(locution derivable), 화자의 의도 언급(scope stating), 제안 표현(suggestory formula), 예비 조건의 언급(refernce to preparatory conditions), 강한 암시(strong hint), 약한 암시(mild hint)-로 나누었다.

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전략을 사용했다라도 전략을 구성하는 언어 표현에 따라 간접성이 조절될 수 있어, Blum-Kulka & Olshtain(1984:203)에서도 전략 외에 통사적 완화 장치(syntactic mitigation)와 기타 완화 장치(Other downgraders)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형태·통사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적 완화 장치에 의해서도 발화의 간접성이 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어도 돼요?, -(으)면 안 될까요?’는 ‘청자의 허락 구하기’라는 동일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두 표현의 간접성의 정도는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간접 화행을 발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화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상미(2005:96)에서 완화 장치를 의사소통 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라고 한 바와 같이, 완화 장치의 잘못된 사용 혹은 미사용으로 인하여 화용적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선영(2014:448)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적 완화 장치의 사용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휘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완화 장치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고립어이므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미 활용과 같이 형태·통사적 층위의 언어 장치²⁾는 어휘적 장치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요청 화행 발화 자료를 기준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요청 화행 발화 시 사용한 전략과 형

2) 과거형, 의문형과 같은 경우는 문체법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통사적 층위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데, 형태소로 실현된다는 측면에서는 형태적 층위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통사적 층위에서 실현되는 언어적 장치가 화용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형태와 통사적 층위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태·통사적 완화 장치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요청 화행에서 한국인과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간 전략과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 사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요청 화행에서 간접성의 정도를 조절하는 언어적 완화 장치 교수를 위한 교육 항목 목록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을 연구한 수파편 분룡(2007), 이명희(2010), 이정덕(2010)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친밀도 +, S(화자)<H(청자)인 부탁 상황’에서 한국인은 주로 ‘실현 가능성 묻기, 청자의 허락 구하기’ 전략을 사용하였고, ‘수행문 사용하기’ 전략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요청 화행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선호하는 전략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는 어미와 같은 형태·통사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에 의해 간접성의 정도가 구분될 수 있어, 최근의 한국어 요청 화행 연구에서는 각 전략에 따른 언어 표현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김혜련·전은주, 2013; 김수정, 2011; 서지혜, 2012; 이선명, 2009; 이명희, 2010; 이정덕, 2010). 이선명(2009)에서는 ‘명시적으로 요청하기’ 전략을 구성하는 주요 표현으로 ‘-(으)세요, -아/어요, -아/어주세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세 표현의 간접성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언어 표현이 제시되어 있을 뿐 언어 표현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서지혜(2012)에서는 요청 화행이 어떠한 문체법으로 나타나는지 빈도를 살피고, 각 문체법 별 문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으)면 안 될까요?’와 ‘-(으)면

안 돼요?’를 한 항목으로 묶어서 분석하여 각각의 표현에 따른 빈도가 분석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으며, 문장의 종결형에 나타나는 표현 외에도 완화 장치의 유형이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완화 장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 요청 화행 연구가 주로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화행 발화 시 사용하는 전략은 숙달도 혹은 거주 기간이 높아질수록 한국어 화자에 유사해졌으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한 언어 표현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김지혜, 2013:63).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을 구성하는 언어적 표현에 집중한 연구(이영희, 2013; 황선영, 2014)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영희(2013)에서는 몇 개의 한정된 표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황선영(2014)에서는 어휘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완화 장치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형태·통사적 층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청 화행 발화 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권 학습자가 사용하는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

언어적 완화 장치는 부담스러운 화행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언어적 완화 장치의 유형(type)과 구현(token)의 수에 따라 공손성의 정도가 조정될 수 있다. Blum-Kulka & Olshtain(1984)에서는 언어적 완화 장치로 통사적 완화 장치와 기타 완화 장치가 있다고 하였고, Yate(2010)에서는 통사적 완화 장치와 어휘적 완화 장치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두 연구에서 영어의 통사적 완화 장치의 유형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표 1> 영어의 통사적 완화 장치 유형

연구	유형
Blum-Kulka & Olshtain(1984)	과거형(Past tense), if 절 내포(Embedded 'if clause), 의문문(Interrogative), 부정문(Negation)
Yates(2010)	과거형(Past marking), 내포(Embedding), 화법조동사(Modals), 진행형(Continuous)

통사적 완화 장치 자체는 범언어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언어에 따라 그 범주나 활용 방법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한국어의 완화 장치도 음운, 어휘, 통사, 화용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국어학 연구에서는 형태·통사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완화 장치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언급하였다³⁾.

<표 2> 한국어의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 유형

연구	유형
이혜영(1996)	활용 어미, 피동 구성, 의문명사화보문, 간접 인용, 생략, 간접 화행
전혜영(2004)	경어법의 등급상 존대 어미, 피동형, 보조 동사(보조 용언),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접속어미, 부정의문형, 의문명사화, 인용, 간접 화행, 생략
한상미(2005)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보조 동사(보조 용언) 구문, 내포 구문, 연결 구문
유혜령(2010) ⁴⁾	부정, 간접 인용, 피동·사동, 연결어미의 종결적 사용, 보조 용언

3) 이해영(1996), 전혜영(2004)에서는 간접 화행과 생략을 담화, 화용적 층위의 언어적 장치로 분류하였다. 두 현상은 대표적인 담화, 화용적 자질이다. 그런데 <표 2>에 포함시킨 것은 두 현상이 발화되거나 문장으로 나타날 때 형태, 통사적 측면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요청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문 좀 열어 줄 수 있어요?’는 의문문으로 실현된 것이다.

4) 유혜령(2010)에서는 형태, 통사적 공손 표지의 의미 범주로 ‘허용, 추측, 선택·희망, 가능성·능력, 부정문, 간접 인용, 피·사동, 연결어미의 종결적 사

먼저 형태적 측면에서 실현되는 언어적 장치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어 어미 중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겠-’, ‘-는데’, ‘-아/어서’ 등이 있다. 전해영(2004:79)에 따르면, ‘-겠-’은 [비확정]이라는 기본 의미를 통해 화자의 강한 태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는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설명]이라는 의미에서 화자의 의견보다 상황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어미 중 연결어미를 종결어미로 사용하게 되면 덜 단정적으로 느껴지게 되기도 한다.

또한 보조 용언 ‘-아/어 주다’는 전통 문법에서 [봉사]로, ‘-아/어 보다’는 [경험]이나 [추정]으로 분석된다. 요청 시 이러한 보조 용언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부탁이나 권유로 나타나 청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줄어들게 된다(이해영, 1996:44). 그리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화자는 ‘-았/었으면 좋겠다’에서와 같이 과거형을 사용함으로써 현 상황과 거리를 두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통사적 층위에서는 피동 구성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주장하기보다는 인지된 상황이나 변화된 사태의 경험자로서 그 상황이나 사태를 전달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며(이해영, 1996:49), 의문형 보문화를 통해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원하는 정보 제공의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이해영, 1996:53). 그리고 간접 인용으로 전달 시 사건을 객관화하고 간접화하게 된다. 의문형 보문화와 간접 인용은 통사적 측면에서 내포문으로 실현된다. 또, 의문문도 대표적인 통사적 완화 장치 중 하나로 이해영(1996)과 전해영(2004)에서는 간접 화행의 대표적

용, 그 밖의 것(보조 용언, 진실 축소)’의 9가지로 분류하였다. ‘허용, 추측, 선호·희망, 가능성·능력’은 의미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부정문, 간접 인용, 피·사동, 연결어미의 종결적 사용, 그 밖의 것 중 보조 용언’은 형태, 통사적 층위의 장치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아 <표 2>에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례로 언급하였고, 한상미(2005)에서는 종결법으로 나타나는 완화 장치 중 하나로 의문문을 들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한국어에 형태·통사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완화 장치로는 ‘어미 사용, 연결어미의 종결화, 보조 용언 사용, 과거형, 피동형, 내포문(의문형 보문화, 간접 인용), 의문문’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 실험에서 수집한 자료에 나타난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 유형을 추출하여 분류하였으며, 이를 구성하는 어미나 언어 표현도 본 실험의 한국인의 자료에 나온 유형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의 구체적인 분석틀은 3장에 제시하겠다.

3. 연구 방법

3.1. 실험 참여자

본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 7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비교 집단으로 한국인 21명에게도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호칭어나 어휘적 표현과 같은 어휘적 층위의 언어 장치가 주로 쓰인다(정진, 2013:417). 반면 한국어는 어휘, 통사, 화용의 여러 측면에서 언어적 장치를 찾을 수 있다(전혜영, 2004:74).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형태·통사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장치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실험 참여자 정보

	중국어권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국적	중국, 대만, 홍콩	한국
연령	20, 30대	20, 30대
직업	학생	학생
성별	남자 20명, 여자 50명	남자 6명, 여자 15명
서울 시내 한국어 교육기관 재학 등급	중급(3, 4급) 36명, 고급(5, 6급) 34명	-
한국어 상호작용 정 도 점수 ⁵⁾	0~8점 (평균 5.1, 표준편차 1.9)	-
한국 거주 기간	1~60개월 (평균: 12.5, 표준편차 14.3)	-

3.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구어적 특성이 잘 드러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역 할극을 실시하였다. 언어적 완화 장치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는 간접 화행이 적절할 수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발화하는 게 더 적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과 중국어권 학습자의 언어적 완화 장치 사용을 비교하고 특정 상황에 자주 쓰이는 언어적 장치를 목록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함에 있으므로 상황 변인은 최대한 통제하였다.⁶⁾

- 5) 한국어 상호 작용 점수는 황선영(2014:438)에서와 같이 ‘한국인과 한국어 사용 정도, 다른 학습자와 한국어 사용 정도, TV, 영화, 라디오 접촉 정도’를 조사하여 이를 항목별 정도에 따라 0점~3점까지의 점수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상호 작용 점수는 0~9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본 실험 참여자 집단은 0~8점으로 구성되었다.
- 6)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학에서 요청 화행 연구는 친밀도, 사회적 거리 등과 같은 대화상대자 변이에 따른 언어 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략이 아닌 발화의 간접성을 조정하는 언어적 장치 사용

상황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상황 중 상황 적절도가 높게 나타난 상황을 찾고, 친소 관계와 사회적 지위가 같은 상황 5개를 우선 선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여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가 잘 나타나는 상황 2개로 최종 선정하였다⁷⁾. 최종 선정된 상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상황 개요

상황	성격	친밀도	사회적 지위	요청 내용
1	부탁	+	S<H	(1년 간 수업을 들은) 선생님께 책을 빌리려고 함
2				(1년 간 수업을 들은) 선생님께 과제 제출 날짜 연기를 부탁함

3.3. 자료 분석

요청 화행의 전략과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의 분석 틀은 <표 5>, <표 6>과 같다. 전략은 이선명(2009:35)의 분석틀에서 약간 수정하였고⁸⁾,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와 어미 및 언어 표현에 대한 분석틀은 2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실험 자료에서 나온 유형을 모두 추출하여 분석

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Yates(2010)에서와 같이 전략 사용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이는 통제하고 상황을 단순화하여 제시하였다.

- 7) 선행 연구에서 상황 적절도가 높게 나타난 상황의 수가 많지 않아 ‘친밀도 +, 사회적 지위 S<H’인 상황이 최종 선정되었으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항목 목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의 완화 장치를 살펴보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8)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 연구에서는 주로 CCSARP의 전략 구분 틀을 활용하여 분석틀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초점이 전략 분석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 이선명(2009)의 틀을 약간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선명(2009:35)에서는 7, 8, 9번 전략을 ‘예비적 조건 언급’의 하위 전략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위 전략을 없앴으며, 전략명에 대한 번역을 수정하였다.

들을 만들었다.

<표 5> 간접성의 정도에 따른 전략 구분

간접성의 정도	전략
직접적	1. 명시적으로 요청하기
	2. 수행문 사용하기
관계적, 간접적	3. 정보 요청 질문하기
	4. 의무 진술하기
	5. 소망, 의도 표시하기
	6. 제안하기
	7. 실현 가능성 묻기
	8. 청자의 허락 구하기
	9. 청자의 의지 묻기
비관계적, 간접적	10. 암시하기

<표 6>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의 유형과 언어 표현⁹⁾

유형	언어 표현
의문문	-(으)ㄴ까요?, -나요?/-(으)ㄴ가요?
부정 의문문 ¹⁰⁾	-(으)면 안 될까요?, -(으)ㄴ 수 없을까요?
내포문	-(으)ㄴ까/나/-(으)ㄴ가 해서, -는지 여쭙려고 /궁금해서, -다고, -아/어 달라고
보조 용언 사용	-아/어 주다, -아/어 보다
피동형	-게 되다
과거형	-았/었으면 해서
연결어미의 종결화	-는데요, -아/어서요

9) <표 6>에는 언어 표현이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인 21명을 대상으로 한 본 실험의 상황에서 나온 것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별로 자주 쓰이는 언어 표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10) 부정 의문문을 의문문과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첫째, 부정 의문문이 형태, 통사적 완화 장치로 구분될 수 있는 ‘부정형’과 ‘의문형’이 결합된

4. 한국인과 학습자 간 전략 사용 비교

본 장에서는 기존의 화행 연구에서와 같이 전략 사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수집된 발화를 통하여 간접성의 정도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 집단 간 전략 사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¹¹⁾.

<표 7> 집단별 전략 사용 비교

전략	한국인		중국어권 학습자	
	상황 1	상황 2	상황 1	상황 2
명시적으로 요청하기			17%(12)	
수행문 사용하기		5%(1)		
정보 요청 질문하기			1%(1)	1%(1)
소망, 의도 표현하기			7%(5)	
제안하기				1%(1)
실현 가능성 묻기	57%(12)	14%(3)	50%(35)	40%(28)
청자의 허락 구하기	29%(6)	81%(17)	25%(17)	57%(39)
암시하기	14%(3)			1%(1)
계	100%(21)	100%(21)	100%(70)	100%(70)

중국어권 학습자는 직접적 전략인 ‘명시적으로 요청하기’를 17% 사용하였고, 주어진 상황에서 한국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정보 요청 질문하기, 소망, 의도 표현하기, 제안하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형태이므로 분류 기준을 부정형과 의문형으로 하면 하나의 발화가 두 개의 언어 장치로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표현 목록을 만드는 것이므로 덩어리(chunk) 표현으로 제시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 한국인은 사용하지 않은 전략을 학습자가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 부분을 빗금으로 표시하였으며, %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표 8>, <표 9>, <표 10>, <표 11>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와 같이 한국인과 다른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인한 의사소통 실패가 유발될 가능성이 보인다.

한편, 각각의 상황에서 75%와 97%의 학습자가 한국인이 주로 선택한 ‘실현 가능성 묻기’와 ‘청자의 허락 구하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수파편 분류, 2007; 이명희, 2010; 이정덕, 2010)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친밀도 +, 사회적 지위 S<H인 부탁’ 상황에서는 두 집단 모두 ‘실현 가능성 묻기’와 ‘청자의 허락 구하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현 가능성 묻기’와 ‘청자의 허락 구하기’는 ‘관례적인 간접(conventionally indirect)’ 요청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습자가 간접적인 전략을 선택해 사용했으므로 간접 화행을 잘 발화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래 (1)~(4)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한국인의 발화와 사용된 전략을 나타낸 것이고, (5)~(8)은 학습자의 발화와 전략을 나타낸 것이다¹²⁾.

- (1) 선생님께 혹시 있나 싶어서 있으시면 빌릴 수 있을까 여쭙보려고 왔는데요. (상황 1, 실현 가능성 묻기)
- (2) 혹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그 책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상황 1, 청자의 허락 구하기)
- (3) 그래 갖고 어떻게 과제 제출 기한을 조금 늘릴 수 있을까요? (상황 2, 실현 가능성 묻기)

12) 학습자는 ‘한국어 교육 기관 등급, 문법 점수(20점 만점), 거주 기간(개월 수), 상호 작용 점수(9점 만점)’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5)의 ‘3급 G 7, L 1, I 6’은 ‘한국어 교육 기관 3급 재학 중이고, 문법 점수 7점, 한국 거주 기간 1달, 상호 작용 점수 6점인 학습자’의 발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법 점수는 한국어능력시험 기술 문제 중 어휘 및 문법 영역에서 발췌한 20문항에 대한 정답 수를 나타낸다.

- (4) 정말 죄송한데 혹시 그 하루만 날짜 느 마감 어 늦춰주시면 안 될까요? (상황 2, 청자의 허락 구하기)

- (5) 책 빌릴 수 있어요? (상황 1, 실현 가능성 묻기, 3급 G 7, L 1, I 6)
- (6) 책 있으면 빌려줘도 됩니까? (상황 1, 청자의 허락 구하기, 3급, G 3, L 4, I 3)
- (7) 제출 기간을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습니까? (상황 2, 실현 가능성 묻기, 5급, G 13, L 4, I 8)
- (8) 그 숙제 다음 주에 내면 안 돼요? (상황 2, 청자의 허락 구하기, 21번: 4급, G 17, L1, I6)

(1)과 (5), (2)와 (6)은 상황 1에서 각각 같은 전략을 사용한 발화의 예이고, (3)과 (7), (4)와 (8)은 상황 2에서의 발화이다. 각각의 발화 쌍을 전략으로만 비교해 보자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발화가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화보다 훨씬 더 간접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는 언어적 장치에 의해 발화의 간접성이 조절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1)에서는 한 문장에 ‘내포문 형성’, ‘연결어미의 종결형’ 등의 형태·통사적 장치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요청을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반면 (5)나 (6)은 상대적으로 완화 장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간접적 전략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느껴진다. 이를 통하여 전략 사용만으로는 발화수반력을 약화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발화 중 5%에 불과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전략인 ‘수행문 사용하기’ 전략을 사용한 경우도 나타났다. 다른 참여자와 달리 직접적인 전략을 활용하였으므로 이 한국인은 의사소통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래 (9)는 ‘부탁한다’라는 요청을 나타내는 말을 직접 사용하여 ‘수행문 사용하기’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인의 발화이

다. (9)에서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전략이 사용되었으나 ‘좀’과 같은 어휘적 완화 장치와 보조 용언 ‘-아/어 주다’ 사용, ‘내포문’ 활용과 같은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를 사용하여 발화의 간접성을 조절하고 있다.

(9) 제출 기한을 연기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간접적인 전략을 사용했으나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발화가 있고, 직접적인 전략을 사용했으나 매우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발화가 있다. 즉, 한국어의 요청 화행은 CCSARP의 간접성의 정도에 따른 전략만으로는 간접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한국인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으나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¹³⁾. 그러므로 학습자의 화행을 분석하거나 한국어 간접화행에 대해 교수할 때에는 전략 외에 언어적 표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집단별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 사용 비교

본 장에서는 간접 화행 발화 시 한국인과 중국어권 학습자 간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빈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 살펴본 한국인과 학습자의 발화 중 (2)와 (6)을 다시 비교해 보자.

13) 한상미(2005:96)에서는 통사적 완화 장치의 잘못된 사용은 모두 대화 분위기에 장애를 줌으로써 의사소통 실패를 가져오므로 통사적 완화 장치의 잘못된 사용은 의사소통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 (2) 혹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그 책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6) 책 있으면 빌려줘도 됩니까?

두 발화는 같은 상황에서 ‘청자의 허락 구하기’라는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였고, 요청을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학습자 역시 간접적인 전략과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요청을 완곡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 발화는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한국인의 발화가 완곡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양태 표현의 사용과 완화 장치의 활용 여부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화 장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인과 중국어권 학습자의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의 유형과 구현의 사용 빈도를 비교하여 학습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 <표 8>은 집단별 완화 장치 사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 8>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 사용 비교

유형	한국인	학습자
의문문	41%(28)	74%(100)
부정 의문문	12%(8)	12%(16)
내포문	18%(12)	1%(2)
보조 용언	15%(10)	0
피동형	1%(1)	1%(1)
과거형	1%(1)	0
연결어미의 종결화	12%(8)	3%(4)
명령문	0	7%(10)
평서문	0	2%(3)
계	100%(68)	100%(136)

먼저 한국인의 발화를 보면 21명의 발화에서 68개의 통사적 완화 장치가 나타났고, 중국인은 70명의 발화에서 136개의 완화 장치가 사용되었다. 즉, 한국인은 1인당 평균 3.2개의 완화 장치를 사용했고, 학습자

는 1인당 평균 1.9개의 완화 장치를 사용하여서 전체 구현의 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학습자가 완화 장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의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학습자 집단은 의문문 외 다른 장치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중국어에서 요청 화행이 주로 의문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명희, 2010:131)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또, 한국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명령문과 평서문이 나타났다¹⁴⁾.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여 요청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나 위의 (6)과 같은 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학습자의 발화는 의문문을 사용했다라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통사적 완화 장치인 의문문을 사용했음에도 요청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부족했던 것은 아래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된 언어 표현의 차이 때문이다.

<표 9> 의문문과 사용된 언어 표현 비교

유형	언어 표현	한국인	학습자
의문문	-(으)르까요?	79%(22)	16%(17)
	-나요? / -(으)ㄴ가요?	21%(6)	6%(7)
	-아/어요? (괜찮아요? 어때요?)	0%(0)	76%(83)
	-습니까?	0%(0)	2%(2)
소계		100%(28)	100%(109)

14) 한국인도 요청 시 명령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평서문이 통사적 완화 장치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제시된 ‘친밀도 +, 사회적 지위 S<H인 부타 상황’에서 명령문과 평서문을 활용해 요청을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학습자의 자료에서만 쓰였다는 것은 한국인과 다른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 의문문	-(으)면 안 될까요?	88%(7)	25%(4)
	-(으)르 수 없을까요?	12%(1)	0%(0)
	-(으)면 안 되나요?	0%(0)	6%(1)
	-(으)면 안 돼요?	0%(0)	69%(11)
소계		100%(8)	100%(16)

의문문으로 표현된 간접 화법의 경우, 한국인은 주로 ‘-(으)르까요?’의 형태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 ‘-나요?/-(으)르가요?’의 형태를 사용한 반면, 학습자는 한국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아/어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으)면 괜찮아요?’의 형태가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어 요청 화행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직역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기대어 공손성(politeness)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습니까?’를 쓴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 중 아주높임법인 ‘합쇼체’를 사용하여 공손을 나타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발화에 합쇼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통하여 한국어 대우법 체계와 공손성은 그 층위와 체계가 다를 수 있다.

<표 10>은 ‘내포문, 보조 용언, 피동형, 과거형, 연결어미 종결화’를 통해 완곡하게 표현한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다양한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었다. 그 반면, 학습자들은 <표 8>에서 본 바와 같이 의문문 외의 완화 장치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10> 의문문 외 완화 장치 사용 비교

유형	언어 표현	한국인	중국인
내포문	-(으)르까/나/-(으)르가 해서	67%(8)	0(0%)
	-는지/(으)르지 여쭙려고 /궁금해서	17%(2)	50%(1)
	-다고	8%(1)	50%(1)
	-아/어 달라고	8%(1)	0(0%)
소계		100%(12)	100%(2)

보조 용언	-아/어 주다	80%(8)	0(0%)
	-아/어 보다	20%(2)	0(0%)
소계		100(10)	0(0%)
피동형	-게 되다	100%(2)	0(0%)
과거형	-았/었으면 해서	100%(1)	0(0%)
연결어미의 중결화	-는데요	50%(4)	25%(1)
	-아/어서요	50%(4)	0(0%)
	-는지.....	0(0%)	50%(2)
	-(으)려고요	0(0%)	25%(1)
소계		100%(8)	100%(4)

이 장치들은 어미 활용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언어적 장치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어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간접 화행에서 이러한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수가 요구되는데, 한국인의 자료에 나타난 표현 목록을 정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친밀도 +, 사회적 지위 S<H인 부탁 상황’에서는 ‘-(으)면 안 될까요?, -았/었으면 해서’ 등과 같은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맞는 적절한 언어 표현을 묶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1>은 학습자 자료에서만 추출된 유형이다. 먼저, 완화 장치로 보기 어려운 명령형을 통해 직접적인 방법으로 요청을 한 경우가 10회 나타났다. 그리고 ‘-(으)면 좋겠다’와 ‘-고 싶다’는 완화 장치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한국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중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학습자 자료에만 나타난 언어 장치와 표현

문체법	언어 표현	한국인	중국인
명령문	-(으)세요	0	76%(10)
평서문	-(으)면 좋겠어요	0	8%(1)
	-고 싶어요	0	8%(1)
	-아/어야 돼요	0	8%(1)
소계		0%(0)	100%(13)

본 장에서 한국인과 중국어권 학습자의 언어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한국인과 같은 전략을 활용하여 요청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이 다양한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를 여러 번 사용하는 데 비해 학습자들은 한국인과 다른 표현을 선택해 학습자의 의도와는 달리 요청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대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별로 사용되는 언어적 장치와 언어 표현의 조합이 교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친밀도 +, 사회적 지위 S<H인 부탁 상황’에서 한국인은 ‘의문문, 부정의문문, 내포문, 피동형’ 등을 통해 발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며 구체적으로는 ‘-(으)르까요?, -나요/-(으)니까요?, -(으)면 안 될까요?, -(으)르 수 없을까요?, -(으)니까/나/-(으)니까 해서, -는데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및 논의

화행의 간접성은 전략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언어적 장치를 통해서도 그 정도가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간접 화행을 분석할 때는 전략 외에 음운, 어휘, 형태·통사적 층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완화

장치를 함께 보아야 한다. 언어적 완화 장치라는 개념 자체는 범언어적 특성이지만 언어에 따라 그 범주나 활용 방법이 달리 나타날 수 있어, 언어 간 차이가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요청 화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략 분석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서 활용되는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의 사용을 빈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빈도 분석 결과, ‘친밀도 +, 사회적 지위 S<H인 부탁’ 상황에서 한국인은 요청 시 ‘-(으)ㄴ까요?, -나요/-(으)ㄴ가요?, -(으)면 안 될까요?, -(으)ㄴ 수 없을까요?’를 활용한 ‘의문문’, ‘-(으)ㄴ까/나/-(으)ㄴ가 해서’로 나타나는 내포문과 보조 용언, 피동형, 과거형, 연결어미의 종결적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어권 학습자는 ‘보조 용언, 피동형, 과거형, 연결어미 종결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은 활용하되 한국인과 달리 ‘-아/어요?, -습니까?’를 사용해 언어적 완화 장치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완화 장치에 대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완화 장치를 구성하는 언어 표현의 목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어 교육학에서 요청 화행에 대한 연구는 다른 화행에 비하여 많이 이루어진 편이지만,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 교재에도 반영이 되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간접 화행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 특정 유형에 편중되어 제시되어 있었고(권성미·이혜용, 2008:27), 적절한 담화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김혜련·전은주, 2013:253), 의문문의 화용적 기능도 비교적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었다(이준호, 2008:18)는 지적이 있었다. 즉, 화용적 자질이 목록화되지 못하였고,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교실 교육에서는 직관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정 화용

적 현상에 집중하고 있었다(이해영, 2015:263).

경력 있는 교수자의 직관은 경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추리된 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 언어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귀납적 추리의 결과를 확인해 교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화용적 자질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등급화되어 교수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각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전략과 언어적 표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황별 전략과 언어적 완화 장치의 사용 외에도 비언어적 표현, 초분절적 요소의 사용이 복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성미 · 이해용(2008). 한국어 초,중급 교재에 제시된 간접화행의 실현 양상 연구, <한국어교육> 1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31쪽.
- 김수정(2011). 한국어 교재의 공손성 분석: 요청 발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3). 구어 담화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요청 화행 실현 양상 연구 -전화 메시지 남기기 과제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2호, 이중언어학회, 45쪽~69쪽.
- 김혜련 · 전은주(2013). 한국어교육학 :한국어 요청 화행 교수-학습에 관한 비판적 분석-초급 교재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9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33쪽~259쪽.
- 서지혜(2012). 맥락을 고려한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3호, 시학과 언어학회, 111쪽~135쪽.
- 수파원 분릉(2007).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요청 화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혜령(2010). 국어의 형태 · 통사적 공손 표지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41권, 청람어문교육학회, 377쪽~409쪽.
- 이선명(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 연구: 요청 화행 실현 전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2010). 한국어와 중국어의 요청 화행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42호, 이중언어학회, 103쪽~133쪽.

- 이영희(2013).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나타나는 공손성 실현 양상: 완화표현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7권 1호, 한국어문화교육학회, 159쪽~183쪽.
- 이정덕(2010).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 표현 습득 연구-말레이시아 학습자의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4호, 이중언어학회, 217쪽~246쪽.
- 이준호(2008).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의문문 교육 연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의문문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6쪽.
- 이혜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영(2015). 한국어 화용 교육에서의 명시적 교수 가능성과 교실 적용, <한국어교육> 26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7쪽~266쪽.
- 전혜영(2004). 한국어 공손표현의 의미, <한국어의미학> 15호, 한국어의미학회, 71쪽~91쪽.
- 정진(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겠-"을 포함한 요청 화행의 공손 의미 습득 양상, <한국어의미학> 40호, 한국어의미학회, 415쪽~439쪽.
- 한상미(2005).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 :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영(2014). 요청 화행에서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 연구-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 147호, 한국어교육학회, 431쪽~454쪽.
- Bardovi-Harlig, K., & Bastos, M.-T.(2011). Proficiency, length of stay, and intensity of interaction and the acquisition of conventional expressions in L2 pragmatics. *Intercultural Pragmatics*, 8, pp. 347~384.
- Blum-Kulka, S., & Olshtain, E.(1984). Requests and Apologies: A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CCSARP). *Applied Linguistics*, 5(3), pp. 196~213.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and Morgan J. 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pp.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Yates, L.(2010). Dinkas Down Under: Request Performance in simulated Workplace Interaction. In Kasper, G., Hanh Thi Nguyen, Dina Rudolph Yoshimi, and Jim K. Yoshioka(Eds.), *Pragmatics and Language Learning*, 12 (pp. 113~140). University of Hawaii, National Foreign Language Resource Center.

208 이중언어학 제62호(2016)

황선영 (Hwang Sunyoung)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 전임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 과정 수료

전화번호: 02-3277-3715

전자우편: hwangsy8199@ewha.ac.kr

접수일자: 2016년 2월 4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3월 3일

게재확정: 2016년 3월 10일